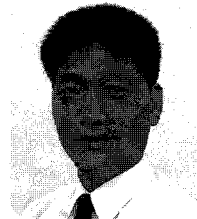


# 6월 지육시세는 3,650원/kg 예상

2004년 5월 6일 대전 대양공판장에서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가 kg당 4,000원을 넘어서며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평균 지육 단가도 지육 kg당 3,700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의 돈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 상승하여 최고 가격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도 연말에 금년 연평균 비육돈 지육단가는 최근 2~3년 중에 가장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은 되었지만 이렇게 크게 오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어떠한 예측 프로그램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높은 단가가 유지될 것인가?

금번 돈가 강세의 원인은 첫째로, 2003년 12월 발생한 동남아 조류독감과 미국의 광우병으로 닭고기와 쇠고기를 먹기에 건강의 위협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낀 돼지고기와 생선회로 몰려들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나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따라 잡지 못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둘째로, 자돈의 만성 호흡기 질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폐사율이 급증하여 출하두수가 부족해져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다. 셋째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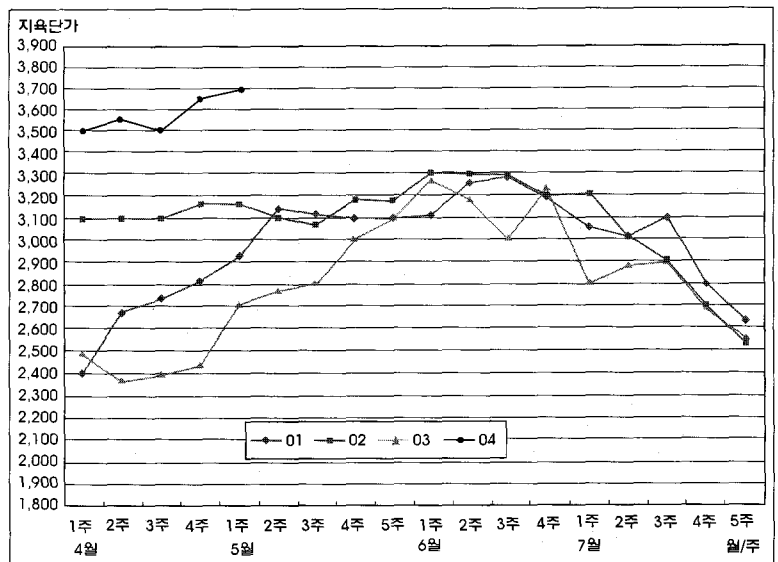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산진한마을 모돈계열팀

년 돼지 가격이 가장 싼 계절인 가을철에 돼지고기를 수매하여 냉동 비축한 후에 봄철에 판매하여 수익을 맞추던 육가공업체들이 2003년에는 금년 돈가를 낮게 보고 비축보다는 싼 값에라도 수출하면서 재고 비축물량까지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서 돼지고기 부족과 소비증가가 유지되면서 돼지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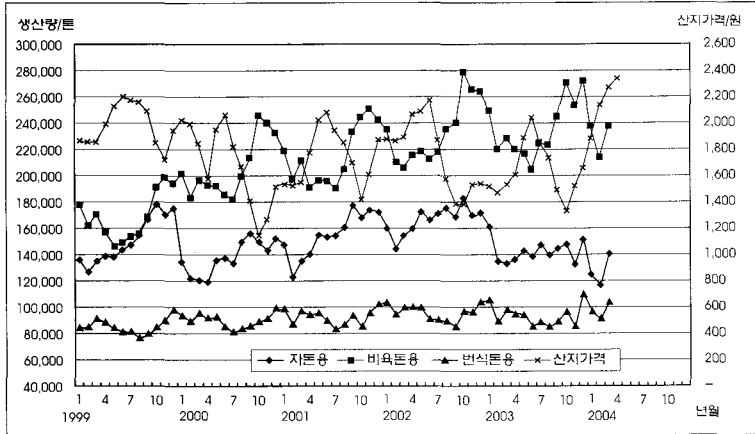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족해진 돈육에 대해 수입 물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개월간 돈육 수입물량의 증가추세는 매우 급격히 증가되어 1월 5,062톤, 2월 4,931톤, 3월 8,530톤, 4월 12,212톤으로 사상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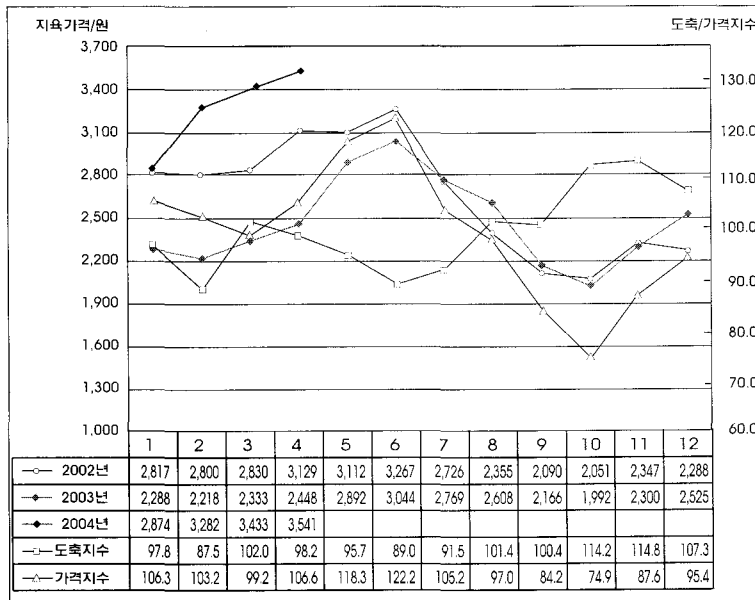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를 기록하고, 이미 지난 4개월간 수입물량이 작년 전체 수입물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서 향후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돼지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만성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자돈 폐사 증가도 4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금년 8월 이후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한 검사 강화가 시작되고, 태국산

닭고기도 질병이 감소하면서 청정화 되면 결국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로 몰렸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돼지 값은 넘쳐나는 공급물량으로 오히려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금년 9월 이후 돼지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료가격의 인상이 2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돼지가격이 예년과 같이 하락할 경우 많은 농장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6월은 소비물량의 증가와 공급물량의 감소로 돼지가격은 연중 최고를 기록하는 달이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에서 지적한 3가지 공급 부족 요인이 그대로 이어져 돼지가격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하물량의 예측에 좋은 자료인 금년 3월의 자돈 사료 생산량은 3월말 사료인상으로 양돈농가의 가수요 발생을 감안해도 모든, 비육돈 사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출하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년 6월의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5월의 강세 추세를 이어가며, 지육 kg당 3,650원을 전후하여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